

「한자가 한글화에 끼친 영향 및 한자교육 현상」

글쓴이: 黃美惠

제 15 회 중국문화대학 One Asia 기금회 국제강좌 '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 연구의 구축과 변화'는 쉬싱칭 교장이 특별히 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한국 명지대학교 증문과 강윤옥 교수를 학교로 초청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강좌의 주제는 '한자가 한글화에 끼친 영향 및 한자교육 현상'에 관한 것입니다. 강윤옥 교수는 특별히 본교의 장징후 이사장을 만나 담화를 나누었습니다.

강 교수는 오랫동안 중국 출토 유교 문헌, 중국 문자 연구에 몰두해왔으며 일찍이 '출토된 유교 문헌으로 보는 유가의 사상 연구', '중국 고대한어 개요', '한자 및 중국문화' 등의 전문서적을 출판한바 있습니다. 강 교수의 이번 강좌주제는 '한자가 한글화에 끼친 영향 및 한자교육 현상'으로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술의 성과를 종합하여 한자의 동아시아 내의 전파 및 한자가 한국 유교문화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에 관해 설명할 것입니다.

강의내용 개요:

고대의 한, 중, 일 세 국가의 한자 기록의 방식은 같았기 때문에 일본 및 한국은 중국문자의 영향을 깊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찍이 한자문화는 서한의 한무제 시기에 이미 한반도에 전파되어 있었으며 이는 출토된 논어죽간을 통해 검증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이미 종이를 쓰기 시작하였을 때 한국에서는 여전히 죽간을 사용하여 논어를 학습하고 있었는데 중국과 달리 모든 논어의 내용을 학습하지 않고 논어의 가장 전형적인 일부분만 학습하였는데 이 부분이 일본의 목간 논어와 동일하였습니다. 이렇게 비록 부분적으로 달랐지만 한, 중, 일 세나라 간에는 여전히 매우 큰 유사점이 있었습니다. 1999 년 부산대학교 박물관 측에서 '논어-공야장' 부분의 내용이 적힌 4 개의 목간을 김해시 봉황동에서 발굴하였는데 이는 한국에서 최초로 발굴한 고전 목간으로써 그 사용배경이 신라의 국학교육기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의 교육은 유학경전을 위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논어' 및 '효경'은 당시 학습자가 반드시 공부해야 할 과목으로 이는 고대의 일본 학습과목과 동일하였습니다. 중국 인쇄술 및 과학기술이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한자의 기록 및 유가사상이 보편화 되었으며 서기 958 년에 고려 왕조가 시작되면서 유가경전은 주요 시험과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가사상이 국교가 되었으며 이 시기에 중요한 국가문헌으로는 2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식적인 유교 서적인 '조선왕조의궤' 와 '국조오례의'가

있으며 또 하나는 조선 시대 당시 한 유생의 중국견문록을 다룬 '표해록'이 있습니다. 위 문헌에서 한자로 당시 조선의 유교제도사회의 문학, 정치, 경제, 제도, 건축, 복장, 음식 등의 각 방면의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중 '조선왕조의궤'를 예로 들면 조선왕조는 유교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라고 설명되어 있으며 한자를 통하여 조선왕실의 600 여년 동안 있었던 국혼, 국왕 즉위, 연회 제도 같은 대형 행사들에 관해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책자는 총 3,895 권으로 상당한 양을 자랑합니다.

중국에서는 몽고의 침략을 받게 되면서 유교문헌의 대다수가 훼손되었지만 한국의 경우 중국과 마찬가지로 몽고에게 침략을 당한바 있으나 전통유산을 1000년 넘게 온전히 보존해내어 유교의 전통문화를 계승해내었습니다. 비록 현재는 한국의 길거리에서 한자를 흔하게 볼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한자 정체자를 보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한자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1961년 공포하였던 상용한자는 1,300자에 달하였으며 1972년에는 중학생의 필수과목으로 한자를 채택하였으며 한국의 '중앙일보'에서는 반드시 한자교육을 진행하여 한국인들이 조상들의 사상, 감정 및 가치관 등의 전통유산을 계승해나가야 한다고 제창하였습니다. '설문해자'가 세 국가에 끼친 영향은 상당히 컸는데 일본어에 존재하는 한자에 대해선 말할 나위도 없으며 이로 인해 세 국가의 문자 문화에는 서로 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에서는 당시 중국에서 전파된 유교문화와 현지문화가 결합된 독특한 유교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14 세기 말, 조선의 국왕은 매년 종묘에서 선대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왔는데 이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중요한 제사를 '종묘대제'라 하였습니다. '종묘대제'는 유교문화에 따라 거행되었던 고품격의 왕실의례였으며 이의 목적은 동방의 기본이념인 '효'를 실천하는데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민족공동체의 유대감이 형성되고 이는 하나의 질서로써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17 세기에는 일본에서도 유가사상을 찬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가문화의 파급으로 예악문화가 한국, 일본 등의 동아시아 국가로 전파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중국의 예악문화를 모방하여 제사를 할 때 편종 등의 악기를 연주하였으며 이후에는 국가의 지배계층이 예악제도를 통해 국가 통치를 더욱 강화시키고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였습니다. 한국은 현재까지도 각종 유교제례의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위 '예악'은 가부장제방식, 사회규범 및 예의의식의 집합체로써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예악제도가 17 세기 에도시대에 한국을 통해 일본으로 전파된 후 모방과 융합을 거치면서 일본특유의 예악형식인 아악이 형성되었습니다. 아악은 중국과 한국의 예악문화와 비교적 큰 차이가 있는데 한국의 예악문화는 중국 명나라의 예악문화에 더 밀접해있습니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14-17 세기의 한중일 세 국가의 사상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었으나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한중 양국에 있던 종묘제도, 종묘의 건축양식, 제사용 도구에도 각각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가 함께 공존해나가는 것 또한 아시아 공동체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한자문화는 한국으로 전파된 후 자체적인 개선을 거쳐 더욱 정교해지고 현지화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발전의 모델은 어느 정도 유가사상이 주도하는 문화구조이지만 중국 유가문화를 받아들일 당시 한국은 이를 전부 똑같이 모방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자는 한국 유가문화 계승에 완전성을 부여해준 동시에 근대사회 발전과정 중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문화특색이 형성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자와 유가문화는 한국 일상생활에 깊숙이 접목되어 '가회만사흥', '기소불욕물시어인' 등의 관념이 항상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어왔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유교사상이 민족의 잠재의식에 융합되어 단체적인 성격과 정신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유교를 민족주의로 응용하여 윤리도덕을 기본적인 이념으로 여기고 군주 및 아버지의 관념을 자기계발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교는 사회생활 속에 녹아있으며 현대 한국인의 생활습관 및 사람들과의 관계 등등에서 유교사상이 고스란히 드러남을 알 수 있습니다. 유가문화인 '구동존이, 화이부동'의 사상은 '한자문화공동체'를 만드는 데 주요한 작용을 하였으며 또 한자문화를 유지하는 지역 간의 평화 및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대만,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간의 교류가

나날이 늘어나고 활성화되면서 한자능력개발의 시급함과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이에 한자 자형, 음운, 어휘에 능통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연구하여 한 권의 한자 관련 서적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한국학생들이 한자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발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동아시아 공동체로서 공동적인 인지를 가지고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존중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한자와 유교문화를 흡수한 후 동시에 융합 및 변화를 겪어 왔는데, 우리는 이러한 다원화된 문화를 더욱 포용하고 인정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각 국은 평화를 유지하며 공동체로서 유학을 통하여 보편화된 인애사상으로 서로 배워나가며 서로를 본보기로 하며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작성자: 황메이웨이, 일문과 조교수)

※본 강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_

<https://oneasia.pccu.edu.tw/facultydata.php?page=15>